

- 본문 : 출애굽기 20장 7절

설교자 : 조경래 담임목사

- 제목 :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 본문 읽기

7.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 마음의 문을 열며

제1계명이나 제2계명보다는 제3계명이 상대적으로 지키기가 쉽다는 말을 많이 한다. 정말 그러한가? 제3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온 인생을 다해서 가장 지키기 힘든 계명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만큼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조롱을 당하는 시대는 없다. 사건과 사고에 목회자, 장로를 비롯한 직분자, 그리고 교회가 연루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명예가 땅바닥에 내던져진 시대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의 소망을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게 두셨다. 그렇기에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제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 때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살펴보는 제3계명을 당신은 잘 지키고 있는가?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어떤 의미의 이름인가? 그리고 성경에서 “여호와”가 사용될 때에는 어떤 목적이 드러나는가?

* 출애굽기 3:13~14a

2.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 출애굽기 20:7

3.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입으로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지만 정작 삶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는가? 여호와와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자.

· 삶의 열매를 거두며

지금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 해야 할 말,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말씀기도제목

1.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임재”의 속성으로 나타나실 때 언약 백성인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확신케 하옵소서!

2.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제3계명 앞에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하지 않는 온전한 제자 되게 하옵소서!

3. 송원교회가 「지뢰밭 인생의 행복 내비게이션」인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